



광남일보



나주, 투자·입주기업 경영지원 노력 결실
윤병태 시장 "투자·정책 지원...기업친화도시 조성" 8



'농어촌수도 해남' 전략 속도 높인다
명현관 군수 미국 방문...시 허브 구축 등 협약 10



AI음악으로 장애 장벽 허물다
차진환 작곡가 앨범 제작 프로젝트 11



'김도영 라이벌' KIA 윤도현, 새 시즌 도약
스프링캠프서 수비 집중...전천후 야수 준비 12

조간 제779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음력2월7일)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기원” 5일 오후 관주시의회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정준호 국회의원 등 추진위원 및 발기인들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무안군에 '도자 복합문화공간' 조성

중기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제품 기획·공동생산·비즈니스모델 발굴 나서

전국 최대 생활도자 주산지인 무안군에 신제품 개발, 디자인, 체험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소공인 집적지구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전남 무안군과 경북 경산시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소공인 집적지구”는 동일 업종의 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중기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전국에 56개의 소공인 집적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 제품 전시·판매·체험, 교육 및 온라인 마케팅 등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소공인 전용 복합지원시설이다.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앞서 전남도와 무안군은 지난해 10월

예비공모를 신청했고, 12월 전남을 포함한 4개 시·도(서울 2곳·대전·경북)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지방비 각 25억원 등 모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안군 청계농공단지내 3층 규모(1183㎡)의 도자 소공인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센터를 완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도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제품개발실, 전시판매장, 창업공간, 회의실 등 소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시설이 구축된다. 특히 3D프린팅, 정밀가공, 시험검사 등 첨단 디지털 공정 장비가 마련돼 소공인의 제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수·고흥 섬지역, K-드론 배송 상용화

앞으로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의 도서 지역에 드론 배송 서비스가 상용화 된다. 그동안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행정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각종 민원서류는 물론 긴급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드론의 넓은 시야와 활동 범위를 활용해 사각지대 순찰도 가능하게 되는 등 섬 지역 치안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1~2월 진행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남 여수·고흥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와 7개 드론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47개 지자체와 39개 기업이 응모해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쳤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레저·행정 모델을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635km를 날아 2993회 배송을 수행한 바 있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을 포함한 26개 지자

국토부·항공원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민원서류·의약품 상시 전달...행정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순찰...불법행위 감시·주민 생명 보호



체는 K-드론배송 서비스와 국제 드론레저스포츠 행사 개최,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혈액과 폐의약품, 도서관 책과 행정 문서 등으로 배송 영역을 넓혔다.

여수시의 경우 돌산읍, 대항간도, 소항간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금오도 등 지역에서 드론 배송·역배송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배송 거점은 3개소, 배달점은

정부는 K-드론 배송분야는 드론비행로를 설정해 안전관리시스템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는 지자체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7개 기업을 선정했다.

드론 확산화 분야에는 △블로그랜드 컨소시엄 △모빌리티원 컨소시엄 △비아이랩이 선정됐고, 고성능드론개발에 △나르마 △엑스드론 컨소시엄, 드론 활용일반에 △시스테크 컨소시엄 △퀵터인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모터·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드론 전주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드론 분야의 해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돕고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구미서 취소된 이승환 공연, 광주서 개최

5월 3일 김대중센터서
시민의 날 공연도 추진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취소된 가수 이승환(사진)의 공연이 오는 5월 3일 광주에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과 맞물려 광주에서 열리는 공연인 만큼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기념일 이전인 5월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승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승환이 센터에 대한 신청을 했으며, 대관 일정에 따라 공연 날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다



목적홀이며 좌석 규모는 3000석이다. 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예술의 전당 등 대관을 추진해 왔다. 이어 5·18 기념일 이후 광주 시민의 날(5월 23일) 기념 공연도 추진 중이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다. 구미시가 시민 안전, 정치적 선동 등을 들어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했고, 이승환이 이에 “민중 성지 광주 공연을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송승기 기자 sky@

1주| 광주버스방송

월 8만원으로 버스에 광고가?!

월 8만원으로 버스에 광고가?!

월 8만원으로 버스에 광고가?!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1주|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